

‘미래교육도시 광주’ 구축 힘모은다

광주시, 교육발전특구 첫 회의 지·산·학 협의체계 본격 가동 대학별 핵심프로젝트 연계 지원

광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도지구 지정에 따라 실효성 향상을 위한 지·산·학 협의체 를 본격 가동한다.

광주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교육발전특 구 협의회’와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를 연이어 열고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글로벌 30 대학 지원 등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정무창 시의회 의장, 광주지역 대학 총장 및 유관 공공기관장 등 32개 교육발전특구 협약기관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발전특구 협의회에서는 지역대학 인

기학과에 대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확대하 는 내용 등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역인재들이 광주에 정주할 수 있도록 대학별 핵심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 우수기업 발굴, 기업 현장 과 교육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지·산·학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올 상반기 내로 교육부와 정책전문가 자문(컨설팅)을 거쳐 교육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기업 등 지역기관들과 지역 공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기 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2월 28일 광주를 포함한 전국 31곳을 교육발전특구로 지정 했다.

이어 열린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협 의회’에서는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라이즈(RISE)와 글로벌대학 30 공모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그동안 라이즈(RISE) 전담기관으로 광주테크노파크를 지정하고, 지난 1월말 교육부 에 라이즈(RISE) 기본계획 초안을 제출했다.

광주시는 향후 지역대학과 유관기관 등 의견 수 령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2024년 글로벌대학 30 공모의 경우 연합 대학 공동 신청이 추가되고 2023년 본지정에서 탈 락한 5개 대학에 대한 예비 지정이 인정됨에 따라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글 로벌대학 30’을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22일까지 교육부에 예비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지정은 오는 7월 발표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교 육맞춤형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광주시는 물론 교육청, 대학, 자치구, 유관기관은 협력을 통해 광 주가 인재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김치산업 이끌 리더 양성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 개설 4월 11일까지 수강생 모집

광주시김치타운은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산업 을 이끌어갈 핵심 리더 양성을 위해 ‘2024년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오는 4월 11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치 리더스 아카데미’는 급변하는 김치 산업 과 국내외 환경에 발맞춰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 ▲김치 역사와 문화 ▲김치 산업 최신 동향 ▲비건김치 등 글로벌 김치 트렌드와 상 품개발 ▲평인에게 배우는 김치 비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정은 4월 18일부터 12주간 매주 목요일에 진 행된다.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방법은 물론 김치 의 역사·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과 김치 제조공정 분야 혁신 기술 등 세계김치연구소가 축적해온 과 학적인 연구자료와 김치명인들의 노하우를 접목 시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강사진으로는 대한민국식품명인, 대한민국김치 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사찰음식 전문가, 미 술쟁 스타 셰프, 한국 1세대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북김치·남도예음식 명장 등 각 분야 최고 전문 가들이 참여하며, 김치 인문학 권위자인 세계김치 연구소 박재민 박사가 교육 운영 책임을 맡는다.

아카데미 참여는 세계김치연구소 누리집 (www.wikim.re.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 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김치연 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노형근 광주김치타운 관리사무소장은 “김치 리 더스 아카데미를 통해 차세대 김치 전문가를 양성 하고 김치산업이 육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급식 위생점검 14일 신학기를 맞아 광주 북구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북구청 시장산업과 도시농업팀 직원들이 관내 초·중·고에 공급할 농산물 등 식자재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전문가 검증회의 연다

18일 유튜브 생방송 공개 사업계획 변경 적정성 등 점검

광주시는 “18일 오전 9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 서 ‘중앙공원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전문가 검증회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공원1지구 개발 초과이익과 사 업계획 변경 적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 다.

광주시는 각 분야별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해당부서 및 기관 추천을 받아 공원, 건축, 토

목, 회계, 금융, 도시계획, 의회, 시민단체 등 분야 별 전문가 8명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신속·투명·공개 원칙에 따라 전문가 검증회의를 유튜브 생방송, 회의실 외부 모니터 등 을 통해 모두 공개하며, 회의 결과도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시는 또 전문가 검증 이후 진행되는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 과정도 인터넷 생방송 등으로 공개해 투 명성을 확보하고, 최종 변경된 사업협약서도 공개 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후보자 공약·비전 비교...능력 검증 도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걸음 더’

〈2〉 너의 정책을 마음껏 펼쳐라 -선거방송토론 편-

◇선거방송토론=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선거공약의 한 부분으로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독특한 특징이다. 후보자가 TV 를 통해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공약, 정책, 비전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내세워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한자리에 후보자를 비교·평가해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후보자의 대담·토론회 참석=초청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나 제20대 대통령선거·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제8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해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

기관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이 참석 대상이 된다.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토론위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초청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기호·성명과 불참 사실을 중계 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고 해당 내용을 각급토론회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대담·토론회=대담·토론회의 주제는 각종 단체, 정당, 전문위원, 국민 등으로부터 의제를 수집하고 전문가 또는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의제개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에서 검토한 후 선정된다. 중앙토론회 홈페이지 ‘후보자토론회 유권자 주제·질문 공모’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22대 총선 광주지역 후보자 대담·토론회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인 오는 28일부터 사전투표 일 전인 4월4일 사이 열릴 예정이다. 공영방송 사(KBS·MBC)와 지상파 방송사(KBC)를 통해 중계방송되며 정확한 일시·장소 등은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공표할 계획이다. 토론위 주관 대담·토론회 영상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토론회 개최 후 중앙토론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된다. 토론위는 선거운동기간(3월28일~4월9일) 후보자 토론 회 다시 보기를 운영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도, 체류형 농업지원센터 귀농 효과 ‘톡톡’

교육 이수자 64%가 귀농 신규 농업인력 유입 효과

전남도가 지원하고 있는 체류형 농업지원센터 가 예비 귀농인에게 큰 인기를 끌며 교육 이수자의 64%가 귀농하는 등 신규 농업인력 유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체류형 농업지원센터는 예비 귀농인이 최소 3개 월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센터에 마련된 숙박시설 에 생활하면서 영농교육관을 통한 이론교육은 물론 작물재배에 대한 전문 실습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영농복합 지원시설이다.

현재 전남에는 구례, 고흥, 강진, 해남, 영암, 함 평 등 6개 군에 전국 최다인 7개 체류형 지원센터 가 운영, 연간 최대 96세대, 495명이 입교할 수 있 다. 입교자는 예비 귀농인과 인근 지역 선도농업 인을 멘토-멘티로 연결해 교육 기간 수시로 컨설 팅을 받을 수 있고, 특화품목 재배에 따른 전문지

식과 함께 전문가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다.

지원센터에 거주하는 동안 농촌문화를 이해하 고, 인근 마을 주민과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해 안정적 농촌생활이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이에 귀농을 바라는 도시민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 으며, 공모 기간에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체류형 농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이 수한 693명 중 443명이 전남에 정착하는 등 전입 률이 64%에 달한다. 김명선 전남도 인구청년인민 국장은 “지방 인구소멸,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 해 2024년부터 매년 2개소씩 지원해 2031년까지 1시간 1지원센터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 다.

/윤현석 기자 chadof@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